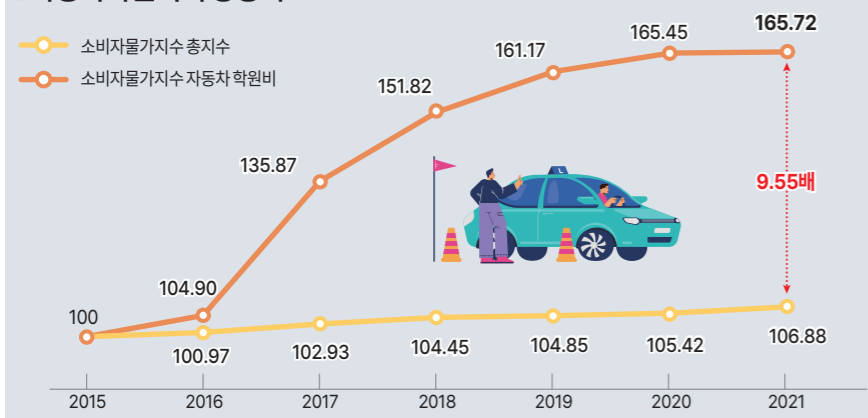




① 운전전문학원의 전국 평균 수강료는 2021년 1분기에 64만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서울은 71만1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②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는 월 평균 마리당 12만3500원의 양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 6% 오를 때 운전학원 수강료 65%↑... 해도 너무해

자동차학원비의 상승폭



후덜덜한 운전학원비

【특별취재팀=김준구 탐방김기찬·임한상·이건혁 기자】 무언가 구매할 때 평균보다 비싼 금액인 줄 알지만, 반드시 지갑을 열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 예컨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전문학원에 수강료를 지불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등이다. 운전전문학원이 아니면 운전을 배울 별다른 방법이 없어 비싸도 '올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갑을 연다. 또 사랑하는 우리 반려견·반려묘를 위해선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에 비싼 줄 알지만 '프리미엄'에 손이 간다.

운전면허 따려면 어쩔 수 없이 '학원'... 면허학원 수강료 6년 새 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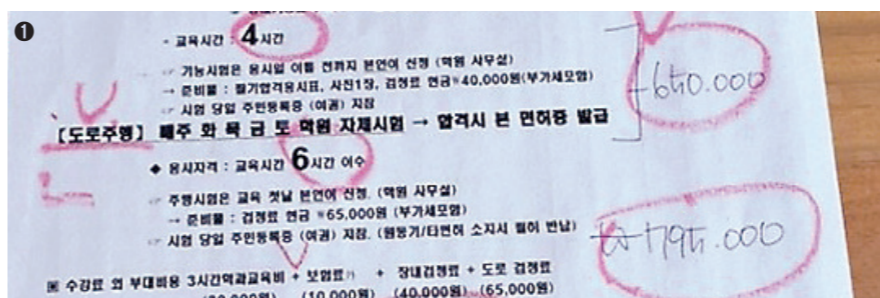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우선 간단한 신체검사를 거친 이후 필기, 장내 기능, 도로주행 등의 시험을 순서대로 합격해야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모든 절차를 도로교통공단 시험장에서 밟는 경우와 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을 거쳐 교육·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다. 최근 실내 스크린 운전연습장도 생겨 화면을 통한 운전 교육이 가능해졌지만, 공인된 시험 절차를 공단 및 학원을 통해 치르고 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도로교통공단 시험장에서 운전전문학원과 달리 면허 취득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나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단 시험장에서 모든 절차를 밟는 경우는 운전 연습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응시소자 등 응시자가 시험을 치르는 편이다. 이에 수업과 시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운전전문학원은 초보자들이 주로 선택한다. 처음 면허 취득에 도전하는 응시자들은 운전 연습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상 달리 방법이 없어 비용을 지불하고 학원에 가야 한다.

최근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는 날로 높아져 응시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3373만 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2016년 3119만 명과 비교하면 254만 명이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어난 셈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어남에 따라 운전전문학원 수요도 증가했고, 수강료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전문학원의 전국 평균 수강료는 2015년 39만5000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 54만3000원까지 큰 폭으로 뛰었다. 2016년 말 면허 취득 절차가 개편되면서 수강료도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2017년 이후에도 수강료 상승은 계속돼 지난해 1분기 64만원까지 치솟았다. 지역별로도 운전전문

면허 따는 '공식'만 줄줄... 구멍구멍 교육 못 벗어나
탈락엔 재시험 비용 12만원... "주머니서 돈 새는 기분"
반려동물용품도 거품 수두룩... 병원 신세 질 땀 '깜깜'



① 인천의 한 운전전문학원에서 전달받았다는 수강료 안내서. 79만5000원에 동그라미가 쳐 있다. ②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대백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에서 반려인들이 다양한 반려동물용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학원의 수강료는 서울이 71만1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구의 경우 46만6000원으로 천차만별이었다.

물가상승 정도와 비교해도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인상 폭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가 106.88(2015=100)로 6.88%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운전전문학원 수강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65.72로 65.72% 상승했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와 비교했을 때 9.55배 차이나는 수치로, 상대적으로 소비자물가 대비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가 약 10배 비싸다는 의미다.

동종업계 대비 영업이익율도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서 최신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전문학원 10곳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동종업계인 교육서비스업 영업이익율이 4.2% 수준인 반면 운전전문학원 10곳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약 21.1%로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동종업계 대비 높은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으면서도 수강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응시자들은 물가 대비 거의 10배가 오른 금액을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인천의 한 운전면허학원에서 9월18일 운전면허 취득에 성공했다는 이재경(24·여) 씨는 면허 취득까지 총 79만5000원을 내야 했다. 이씨는 "몇 주에 걸쳐 불과 4~6시간 진행되는 수업과 시험에 8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며 "도로주행 교육도 코스별로 1~2차례 주행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돈이 줄줄 새나가는 느낌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이어 "이 같은 부실한 수업을 듣고 시험에서 탈락할 경우엔 12만 원을 더 내고 재시험을 보라 했다"며 "이밖에도

수강료를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강요하는 등 미심쩍은 부분도 있어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같은 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안수현(25·여) 씨는 운전전문학원에서 진행되는 수업의 질도 그 값어치를 다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안씨는 "운전면허학원의 수업 자체가 '핸들을 몇 바퀴 돌려야 하는 공식이 있다'는 식의 면허 따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면허 따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귀여운 우리 댕댕이가 쓸 건데"... 반려용품, 막사다간 '호구' 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용품에서부터 사료·장난감 등 구비해야 할 것이 많아 비용 부담이 만만찮다. 애정으로 돌보는 반려동물이지만, 애정만 가지곤 반려동물을 행복하게 해주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 1296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용에 대해 설문한 결과, 마리당 12만35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가족이 됐을 때만 해도 혹시나 아픈 곳이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병원이며 애견샵이며 동분서주하다 보면 1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건 보통이 됐다. 반려동물 간식이나 사료는 물론, 입는 것, 자는 곳 등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반려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반려동물 관련 용품은 고급화

되고 있고 그만큼 높은 가격을 자랑한다. 반려인들의 심리를 이용한 반려동물 관련 업체들이 평균 이상의 과도한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펫택스'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펫택스는 반려동물용을 의미하는 '펫(Pet)'과 세금을 의미하는 '택스(Tax)'를 합한 말로, 같은 제품이라도 반려동물용은 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는 경향을 뜻한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에 긴 가격 거품을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세대에 빚대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펫택스는 취약계층에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반려동물을 키르는 취약계층 604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며 어려운 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의 애로사항 12 순위가 모두 병원비, 사료 및 간식비 등 비용 지출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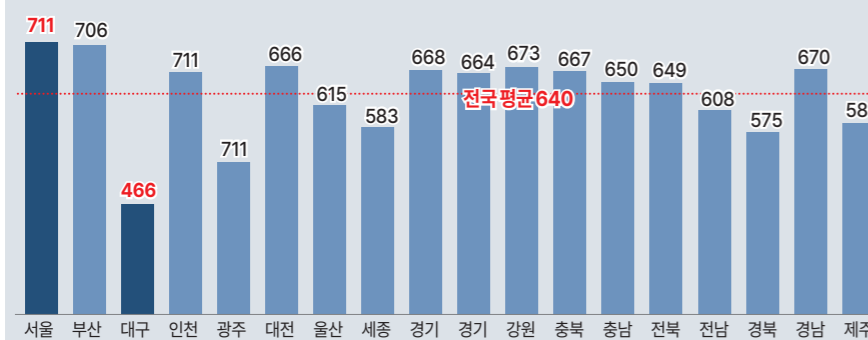
이에 반려동물 양육 비용을 위해 생활비를 줄인다는 양육자들이 37.7%에 달했다. 이어 신용카드로 앞당겨 처리한다는 응답이 22.7%로 나타났고, 돈을 빌린다는 양육자도 7.8%였다. 심지어 치료를 포기했다는 응답도 4.5%로 나타났다.

반려묘 2마리를 키우는 한 '집사'는 "고양이를 한 마리만 키운다 하더라도 사료, 간식, 모래를 포함한 화장실 등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필수"라며 "최소 1개월에 10만 원 이상 지출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고양이들은 본묘고유의 냄새가 있어 캣타워나 장난감 등 반려용품을 중고로 들여올 경우 냄새에 민감한 고양이들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중고용품을 구매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용품을 장만할 때면 늘 새 제품을 사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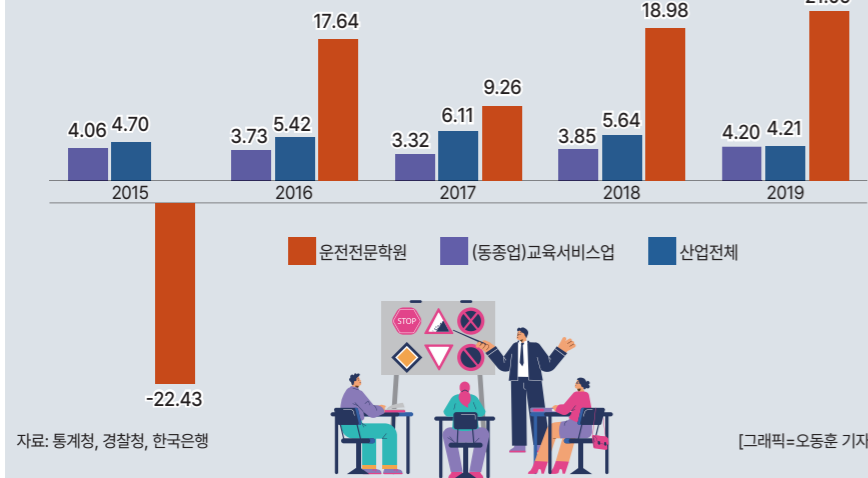
반려견 '레리'를 4년째 돌보고 있는 이주은(25·여) 씨는 반려동물은 애정으로 키워야 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애정만으로 키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구매할 때가 되면 최대한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쇼핑에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며 "똑같은 패드, 사료, 장난감이라도 비슷하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라 여차피 사야 할 것이라면 제대로 사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현근·김경호·최미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은 지난해 8월 '반려동물 관련 용품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이 소비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반려동물 관련 용품은 식품, 의류, 장난감 등 종류와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하기 쉽지 않고, 구매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또 "반려동물 관련 용품의 필수 정보 등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지속해서 관측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가격 적정성에 관한 공적 기관의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1분기 지역별 운전 전문학원 수강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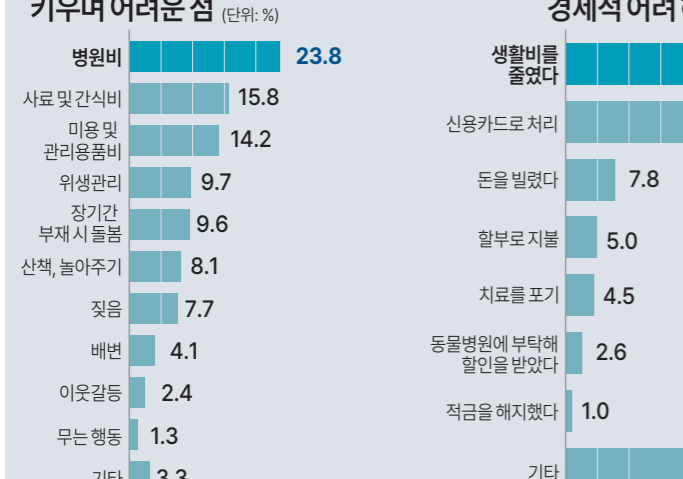
운전 전문학원 10곳 영업이익률 비교



반려동물 마리당 평균 양육 비용



취약계층이 반려견을 키우며 어려운 점



반려동물을 키우며 겪는 경제적 어려 해결방법

